

대한양계협회소식



산란계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최



산란계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 제 1차 회의를 통해 본회 이준동 회장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공동준비위원회는 이준동 회장을 비롯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업계·학계·유통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준비위원들은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서 뜻을 모았다. 이준동 회장은 “의무자조금을 통해 계란에 대한 전략적인 소비홍보와 자율 수급을 조절해 나가자.”며 내년 1월경 대의원회 개최가 목표인 만큼 농가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방문단 내방 한·중 양계협회 친선교류회



중국 북경양계협회(회장 왕장계)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지난 11월 3일 본회를 방문해 한·중 친선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방문단은 자국보다 앞선 한국의 양계산업 시설 및 현황뿐만 아니라 양계협회 역할 및 정부지원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곡물가와 관련하여 중국도 사료 원료의 50% 정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 이므로 앞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근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가 되는 농장 및 가공공장에 대해서 업무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소지가 없을 것이라 설명도 덧붙였다.

양국의 양계협회는 앞으로 서로 긴밀한 협조체

제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문단은 같은 날 오전 이전에 있는 풍한농장(대표 한희)을 방문, 국내 양계 현황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육계의무자조금 추진실무자회의 육계 5원, 종계 50원 거출키로

육계의무자조금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원은 생산자, 정부, 수납기관, 학계, 유통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산자는 경기 최길영, 강원 유광식, 충남 김용주, 전북 한병권, 전남 박주석, 경북 김국록, 경남·제주 이상정 사장이 각각 참여하고, 종계 함경섭, 재래닭 소삼, 감사 김익겸·봉진호 사장이 관리위원으로 구성됐다. 관계공무원으로 농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팀장과 소비단체 (사)한국소비생활연구소 김연화 원장, 학자는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지정됐다. 수납기관은 계육협회가 오는 17일까지 추천해 선정키로 했고, 시일이 넘어갈 시에는 농협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담당하게 된다.

육계자조금 거출금액은 육계 5원, 종계 50원, 토종닭 7.5원, 삼계 2.5원으로 정했다. 내달초 관리위원회부터 구성한 뒤 사무국을 설치하고 내년 2월 중순부터 자조금 거출에 나설 계획이다.

전 직원 워크샵 개최 업무효율화 방안 모색하는 자리 가져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직원단합을

도모하고, 회원서비스 배가 활동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



난 11월 14일 경기도 양평소재 '아띠울펜션에서 2008 양계협회 전직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2008년도 사업실적 점검을 통해 오는 2009년도 신사업소재를 발굴해 현재보다 나은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회발전 방안 및 재정 자립 확보방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알선사업 규모를 확대해 협회를 통한 대량구매로 보다 단가를 낮출 뿐 아니라 생산자와의 연결다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본회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영역을 확장해 홈페이지 정보활용도 증대, 회원 농가 대상 표본지침서 발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족구친선경기 등 직원간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채란분과위원회 산란계의무자조금 시행에 적극 동참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지난 5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산란계의무자조금이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12월 초 대의원을 선출하고 올해



안에 대의원 선거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시행을 진행토록 할 뜻을 밝혔다. 한편 신임 수도권 난가조사위원으로 김인배 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전국난가조사위원장을 역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상호 부위원장은 산란계자조금관리 전반을, 임현완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업무를 역임키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육계의무자조금 추진방향 보고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육계의무자조금 추진방향과 시 방역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육계의무자조금은 관련 농가에서 전액(수당 5원) 거출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가속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

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계약서 사육비 협상(안)에 대해 원가보장을 기본원칙으로 세우고 소위원회 의견을 통해 추후 세부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기가 오면서 시 예방을 위해 각 지부단위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예찰 활동을 하고, 농장내 장화갈아신기 운동 및 농장 소독횟수를 늘려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종계분과위원회

종계농가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추진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지난 12일 경기 평택 소재 웨스트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병아리·종란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곡물가 상승과 모든 제반 비용 상승으로 병아리·종란 생산비가 증가됐지만 계약단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농가의 최저 생산비 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위원회는 안태엽(정우축산), 신현민(구전종계장), 홍광표(풍전부화장), 김상섭(하이라이트), 이봉기(도원농산) 사장으로 구성되었다. 금년 안에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법적 공증 의뢰를 심의하고 2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것을 밝혔다.

《 지회 · 지부 소식 》

**용인채란지부
창립총회 개최**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산란계 농가로 구성된 용인채란지부(지부장 임진관)가 11월 25일 용인 소재 농촌기술센터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지부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용인채란지부는 권역별(수원, 화성, 용인)로 구성됐던 것을 행정 단위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독립 창립하게 되었다. 용인채란지부 창립으로 수원지부는 용인지부로 통합되고 화성지역농가는 평택지부로 편입된다.

**부산경남도지회
양계인 가족 및 관련업계 한마음 대회**



본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황수연)는 지난 29일 김해문화체육센터에서 도지회 회원 및 관련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 행사에서 황수연 도지회장은 “양계인 가족들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단합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그동안 양계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고성군 농축산과 박재영 계장과 밀양시 축산기술과 김명근 주사보에게 대한양계협회 감사장을 수여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 공굴리기, 여보사랑해 게임, 줄다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서로의 화합을 다졌으며, 노래자랑을 통해 한껏 기량을 뽐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천강군 부회장(채란분과위원장) 및 관련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안성육계 · 산란계 지부
바우덕이 축제 양계산물 홍보에 나서**



경기도 안성 육계지부(지부장 김명호)와 산란계지부(지부장 한기석)는 지난 9월 30~10월 5일 안성천에서 개최된 2008 바우덕이 축제에 참가하여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행사기간 동안 닭고기 및 계란 시식 및 판매를 통해 양계산물 우수성을 맘껏 뽐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튀겨낸 닭고기는 이 자리를 찾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농가들이 생산한 계란은 신선도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